

두산, 퓨얼셀 연료전지 공장 준공

익산 제2산단 2000평 규모... 올해 채용한 생산직 26명 포함 110명 고용 창출

익산시 익산제2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한 (주)두산은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퓨얼셀 익산공장을 약2,000평 규모로 조성하고 23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정원 (주)두산 회장 및 그룹 임원진 등을 비롯하여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조배숙 의원(익산 을), 이원욱 의원(화성

을), 발전공기업 및 민간발전사 관계자 등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했다.

퓨얼셀 익산공장은 2016년 2월에 착공하여 7월에 건축을 완료하고 12월에 생산설비를 갖추었다. 2017년 4월 까지 시험가동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M400모델 Fuel cell 생산에 착수하게 됐다. 또한 2017년 채용한 생산직 신입사원 26명을 포함하여 모두

11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연료전지(Fuel cell)는 수소화화반응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얻는 설비로 규모에 관계없이 고효율을 유지할 수 있어 건물용은 물론 주택용으로 사용된다. 소음·진동 및 유지비용이 적어 친환경에너지원으로 미래에너지의 대안으로 꼽히는 수소에너지의 핵심 기술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날 "부단한 혁신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추진하는 연료전지 산업은 두산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계명대-원광대 우정의 길' 조성

원광대 자연식물원에... 표지석 제막식 가져

올해 지내려던 20년을 맞이한 원광대학교와 계명대학교는 원광대 자연식물원 내 이팝나무 길을 '계명대-원광대 우정의 길'로 조성하고, 지난 22일 계명대 이충희 교무부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대표단이 원광대를 방문한 가운데 표지석 제막식을 개최했다.

양교 우정의 길 조성은 지난해 10월 원광대 주관으로 진행된 2016년도 정기 교류행사 중 양교 총장의 자연식물원 방문 시 김도중 총장이 계명대 교화인 이팝나무 꽃으로 조성된 길을 양교 우정의 길로 명명하자고 제안해 이루어졌다.

원광대는 이후 길 양 끝에 '우정의 길' 표지석을 세우고, 2017년 양교 교류행사 20주년을 기념해

이날 표지석 제막식을 가졌다.

원광대 자연식물원 중간 서쪽에서 동쪽을 가로지르는 '양교 우정의 길'은 폭 4m에 길이 135m의 비포장 길로 이팝나무 56그루가 식재돼 있으며, '우정의 길'을 상징하는 표지석을 길 양 끝부분에 세웠다.

김도중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교 교류 20주년에 맞춰 '우정의 길'을 조성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이어온 양교 간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계명대 이충희 교무부총장도 "계명대에도 원광대를 상징하는 기념물이 있다"며, "앞으로 양교 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의회, 주요사업장방문

익산시의회는 23일 위원회 소관 별로 주요사업장을 방문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왕궁 유적지를 방문했다. 익산 왕궁리유적 종합정비계획에 의해 진행 중인 1단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관광객들이 편하게 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18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을 위해 정비 중인 종합경기장을 방문해 관련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당부했다. 이어, 민간위탁기관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금마면 울지리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하였다. 고품질 목이버섯 생산으로 농민들은 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여 우리지역이 목이버섯 시장 선점율, 도시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간여행마을, 체류형 관광객 유치 추진

다양한 경관조명 설치·1박 2일 시간여행 시티투어 상품 등 통해

2017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군산시는 '야간경관 조성' 등의 사업 추진으로 하루 더 머물고 싶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군산시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통해 근대역사박물관 및 내항 일원 약 2만 평방미터 부지에 사업비 8억원 규모의 다양한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광명소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시 원도심이 가진 '불 꺼진 관광지'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군산시간여행마을 일원의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야간 조명 설치, 미디어 파사드 기법의 포토존 조성 등 대표 관광지에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지는 생활 패턴의 변화와 다가올 여름철 더위를 피해 야간관광을 즐기는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야간경관 조성사업과 함께 지난 5월 출시된 '1박 2일 시간여행 시티투어 상품'은 시의 대표관광지인 군산시간여행마을과 고군산군도를 연계하여 방문객들이 군산의 다양한 명소를 둘러보고 군산에서의 1박을 즐기는 또 하나의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이번 상품은 출시와 동시에 지난 5월 6일에는 57명의 첫 손님을 맞이하여 시간여행마을과 고군산을 탐방하

는 일정을 무사히 마쳤으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1박2일 시티투어 상품' 등의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여 300만 관광객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군산군도 완전 개통에 대비하여 6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고군산 종합안내센터, 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연말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군산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하루라도 더 머물도록 야간경관 조성 및 관광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군산 '근대마을 조성' 순항 중

군산시 신흥동 고지대(신흥동일본식 가옥 뒤) 10,000㎡ 부지에 2019년까지 조성 예정인 근대마을조성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근대마을 조성사업은 불랑주거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까지 이미 매입된 28동을 철거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7080 추억여행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근대마을에서 만나게 될 주요시설로는 ▲근대문화자료관 ▲근대생활체험관 ▲근대문화놀이터 ▲근대영상음악관 ▲신흥양조장 ▲추억관 ▲예술인 레지던스 등이 있으며 2019년 완공 이후 근대문화와 연계된 추억여행을 관광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거쳐 총사업비 72억원의 투자를 확정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청소년 박람회, 내년에는 군산에서

여수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장에 시 홍보부스 운영

군산시는 25일부터 3일간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장에 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지난 2월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군산 유치가 확정되었다.

군산시는 여수박람회 참가자들에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차기 개최지인 군산시를 홍보하고, 박람회 운영과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2018년 청소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홍보부스 운영을 진행하게 되었다.

전북도,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함께 운영하는 이번 홍보부스는 군산시 바로알기 퀴즈, 성공기원 메시지 나무, 홍보물 배부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박람회 참석자들에게

군산시를 홍보하게 된다.

시는 내년에 개최되는 박람회에 200여개의 체험부스를 마련하고 문화와 안전·시사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강을 비롯한 공모전·포럼·전시회·공연 등 화려하고 차별화된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다채롭게 준비하여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군산'의 매력을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이번 여수 청소년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과 참관을 통해 2018년 청소년박람회 행사진행 및 사후관리 등의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여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장현 기자

귀금속보석 클러스터, 12월 완공

귀금속보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오는 12월 완공과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귀금속보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40%의 공정률을 보인 가운데 현재 골조공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공정률은 지난 3월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하고 4월부터 조적·방수·창호공사, 외부 단열재 설치 등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자인센터 등은 공중도에 비해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철골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작하여 오는 6월 골조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귀금속보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귀금속과 보석에 대한 기획, 디자인, 제품생산 및 판매 등 산업기능이 집적되어 관련 업계 소득향상과 제품 경쟁력 강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순수분, 산학교류협력 협정 체결

원광대학교와 순수분(주)가 연구 교류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식은 지난 22일 김도중 총장과 김철호 회장, 김용태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광대 본관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MOU를 통해 원광대와 순수분(주)은

곡류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하고, 특수 영양성분 제품개발 연구 교류를 비롯해 식품산업 발전을 선도할 인력양성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원광대 재학생들의 현장실습 등을 통한 취업 연계 및 문화교류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익산=장양원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